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11일 대구 남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수험생을 둔 한 불자가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식품업계, ‘성장 공식’ 새롭게 쓴다

공장 통폐합 등 수익성 중심 슬림화

확장 대신 슬림하게

〈上〉 구조조정 본격화

내수 침체 장기화에 기업성장 한계
세제감면 혜택 종료 등 악재 겹쳐
제조기반 축소… 고강도 체질개선

‘몸집 불리기’와 ‘자회사 쪼개기’로 대변되던 국내 식품업계의 성장 공식이 저물고 있다. 고물가·고환율 장기화와 내수 시장의 성장 한계 속에서 주요 식품사들은 국내 공장 일부를 닫고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는 등 고강도 슬림화 체제로 돌아서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확장 대신 슬림하게] 시리즈를 통해 위기의 국면에서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 식품가의 현주소를 짚어 본다.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식품 생산 현장의 구조조정과 자회사 통폐합 실태(상편), 비주력 사업 매각 및 자진 상장폐지 등을 통한 효율 극대화(중편),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껴낸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K푸드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건 기업들(하편)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편집자주〉

고물가·고환율 장기화와 내수 소비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식품·주류 업계가 확장의 시대를 접고 고강도 ‘슬림화’에 돌입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 생산 거점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유휴 설비를 걷어내는 등 국내 제조 기반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내수 비중이 높은 전통 식품·제과 기업들의 국내 다이어트는 이미 현실화됐다.



롯데월드타워 사옥 전경.

2022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으로 출범한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자산 효율화 차원에서 신라명과와 충북 증평 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해 4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2년 연속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음료주류 명가인 롯데칠성음료 역시 올해 초 창립 이후 처음으로 광주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1984년 가동을 시작해 42년간 호남 지역 생산 거점 역할을 해온 광주 공장을 포함해 전국 6개 공장 중 2곳(광주, 오포)의 운영을 중단하고, 남은 4개 공장(안성, 안성2, 양산, 대전)으로 물량을 집중하는 고강도 생산 거점 통폐합을 단행했다.

주류업계의 체질 개선 칼바람은 더욱 매섭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1분기 맥주 생산능력(CAPA)을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축소했다. 작년 기준 맥주공장 평균 가동률이 58.6%에 머무는 등 저조한 가동률 속에서 유휴 병라인과 작업조를 정리하며 생산 체계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제조 기반 축소의 배경

에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함께 주세 감면 혜택 종료라는 추가 악재도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했으나, 해당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미 국내 주류 시장 출고량이 2014년 대비 17% 이상 감소하는 등 구조적인 위축을 겪어온 상황에서 가중되는 세금 부담은 가뜰이나 힘든 주류업계와 자영업 시장에 더욱 무거운 원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맥주 사업 효율화를 위해 ‘크리시’와 ‘글라드우드’의 생맥주 제품 운영을 선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업소용 생맥주 비중이 높은 하이트진로와 옴비맥주는 가중되는 부담과 원가 압박 속에서 향후 가격 정책과 수익성 방어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식품·주류 빅플레이어들이 일제히 국내 생산 능력을 축소하고 세제 부담에 직면한 것은 국내 시장의 수익성 한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주요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이고 수익성 중심의 ‘효율화’를 다지는 한편, 아낀 자원과 역량을 해외 신규 생산기지와 글로벌 판로 확장에 재배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국내 생산 현장의 가파른 슬림화와 세제 압박은 올해 식품·주류 업계가 마주한 거대한 체질 개선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한화, 오스탈 USA 인수 추진

美 해양 방산시장 진출 가속

기업가치 10억5000만~12억달러 제시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수요 선점 기대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 USA를 최대 12억달러를 들여 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 한화필리조선소에 오스탈의 현지 생산시설을 더해 미국 합정 건조 역량을 확대하고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관련 수요를 선점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미국 계열사 한화디펜스 USA를 통해 오스탈 USA 인수를 위한 비구속적·조건부 제안을 제출했다. 오스탈 전체가 아닌 미국 사업부만 인수하는 내용이다.

한화가 제시한 오스탈 USA의 기업가치는 현금과 부채가 없는 기준으로 10억 5000만~12억달러(약 1조5000억~1조 7000억원)다. 최종 인수 금액은 약 4주간의 실사와본계약협상, 관련 규제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화디펜스 USA는 “한화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미국 내 사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2024년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 왔다. 당시 한화오션을 통해 오스탈 전체를 인수하기 위해 10억2000만호주달러(약 1조원)를 제안했지만 오스탈 경영

진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이후 장외거래로 지분을 사들였으며 지난해 말 호주 정부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을 거쳐 지분 19.9%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번에는 미국 해양 방산시장 진출에 필요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대상을 오스탈 USA로 좁혔다. 미국은 자국 내 군함 건조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현지 조선시설과 합정 사업 경험을 갖췄는지가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마스가 사업이 추진되면서 미국 내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펜실베이니아주 한화필리조선소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조선 생산거점을 갖게 된다.

오스탈 USA는 미국 해군에 함정을 공급하는 주요 조선업체로 앨라배마주 모빌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등에 조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스탈 USA를 인수하면 한화는 필리조선소에서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합정 건조 경험과 미 해군 사업 기반을 보강할 수 있다”며 “미국 내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만큼 마스가를 비롯한 현지 합정 사업에서 수주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정부, 美 ‘무역확장법 232조’ 긴급대책 논의

안보 이유로 반도체·태양광 규제 빗장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제품에 규제 빗장을 걸어 잠그자, 정부와 국내 주요 반도체·태양광 기업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발표에 따른 관계부처·업계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한화큐셀, OCI, SK실트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등 유관 대기업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MIP)를 도입하고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

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로 설정됐다. 수입 신고 가격이 기준치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만큼 징벌적 관세가 가해지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반도체 및 태양광의 기초 소재인 잉곳·웨이퍼, 완제품인 셀·모듈까지 망라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은 물론 미국 현지 공장에도 진출·투자한 기업들의 소재 공급망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계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화큐셀과 OCI 등 국내 태양광 업계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한국산 제품은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232조 관세와 기존 관세를 합산해 최고 15%까지만 부과되는 ‘관세 캡(Cap)’ 혜택을 받는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박정하 “장동혁 광복절 행사 불참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김윤덕,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 지적에 “적극 공감” /사전 뉴시스

▲홍준표 “부부 공동명의로 2주택? 기상천외”…李 지지율 폭락 경고

▲나경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이 다주택?…국가가 이혼 권하나”

▲이 대통령,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욕먹어…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유승민 “삼전신스 반도체 광주 몰빵 전력전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인가